

국제시장에서 원유가격저락의 중요요인

정 춘 심

오늘 우리앞에는 나라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대외경제관계를 주동적으로, 다각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자면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연구를 잘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연구를 잘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7권 225페이지)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연구를 잘하여야 끊임없이 변동되는 자본주의시장경기에 주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나라의 대외무역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할수 있다.

최근 자본주의시장에서 일어나고있는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세계에네르기자원의 기본몫을 차지하고있는 원유의 가격이 급격히 저락되어 원유수출국들의 경제발전과 국제무역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는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국제시장에서 원유가격은 2015년 2월 중순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여 2016년 한해동안만 보아도 월평균 원유가격이 1bbl당 27US\$라는 가장 낮은 수준에 있었다고 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근 3년간 국제시장에서 원유가격이 1bbl당 100US\$이상이었고 2014년 3월의 브렌트원유가격이 1bbl당 107US\$였다고 볼 때 이것은 원유가격이 급속히 저락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국제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호상관계를 반영하며 그것들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만일 국제상품시장에서 생산량이 수요규모를 룡가하여 지나치게 많으면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으로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국제시장에서 원유가격의 급격한 저락도 수요에 비하여 원유의 공급량이 과잉된데 주되는 요인이 있다. 원유의 공급량이 과잉된것은 미국이 원유시장에 대한 지배주의적야망으로부터 원유생산과 수출을 늘이고 세계적인 원유생산국들인 오페크나라들이 자기의 시장지위를 변함없이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량증대조치를 취한것과 관련된다.

국제시장에서 원유가격저락의 중요요인은 첫째로, 세계원유시장을 지배하려는 미국의 원유생산과 수출의 증대와 관련된다.

세계원료동력시장을 지배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지난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으며 그것은 주요원료동력자원인 원유시장에서 더욱 끈질기고 표면화되고있다. 미국은 원유가 공업과 농업, 운수부문의 기본동력원천으로 되고있으며 화학공업발전을 위한 원료, 군수부문의 전략자원으로 되고있는데로부터 일찍부터 그것을 지배하기 위한 갖은 모략과 책동을 다하여왔다. 미국의 원유시장에 대한 지배주의적책동은 지난 시기에는 중근동나라들을 비롯한 원유생산국들의 원유를 독차지하기 위한 침략과 략탈, 내정간섭 등의 방법으로 감행되었다면 오늘은 그 수요와 공급을 좌우지하는 독점적인 원유수출국의 지위를 차지하려는 목적밑에 원유수출을 대대적으로 늘이는 방법으로 감행되고있다.

미국은 세계원유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에서 원유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도록 하였다.

미국은 자국내에서 원유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이미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기 힘들어 그 개발을 포기하였던 원유채취부문에까지 막대한 투자를 들이밀었으며 이것은 점차 미국의 원유생산을 늘이였다. 미국의 발광적인 국내원유개발을 위한 투자의 증대는 새로운 원유채취기술인 수압파쇄기술에 의한 혈암유생산도 늘이였다. 미국에서 2017년 1월 가동상태에 있는 원유채취설비대수가 529대로서 2015년 12월이래 최고수준으로 늘어난것은 미국에서 원유생산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개발원가가 높은 혈암유생산에까지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원유생산을 늘이는 것은 이미 원유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오펜크나라들을 밀어내고 이 나라들로부터 원유시장에서의 가격결정권을 빼앗아냄으로써 그들의 외화수입과 경제발전을 억제하고 저들의 손아귀에 쥐자는데 있었다.

미국은 세계원유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 또한 원유독점체들이 그 수출을 늘일수 있도록 이미 적용되고있던 원유수출금지조치를 폐지하였다.

미국의 원유독점체들은 지금까지 국제시장에 원유를 수출할수 없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후 주요원유수출국들인 아랍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한 미국에 원유수출을 금지할것을 결정한 후 미국국내시장에서는 원유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휘발유가격과 인플레이션의 급속한 등기가 초래되었고 미국의 정치경제적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미국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1974년부터 《에네르기공급의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미명밑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원유수출금지법을 내놓았다.

2015년 12월 미국은 지난 40여년간 유지하여온 원유수출금지법을 폐지하고 그 수출을 합법적으로 승인하였다. 미국의 원유수출금지조치의 폐지는 미국원유독점체들에게 해외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이것은 국제시장에서 원유공급의 파인을 초래하였고 가격저락을 일으키는 주되는 요인의 하나로 되었다.

국제시장에서 원유가격저락의 중요요인은 둘째로, 세계적인 원유생산국들인 일부 오펜크나라들이 원유시장에서 차지하고있는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량증대조치를 취한것과도 관련된다.

오펜크는 세계원유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주요원유수출국이다. 국제원유시장에서 이 나라들의 생산규모는 세계원유수요와 공급관계에 결정적영향을 미친다. 만일 오펜크성원국들이 원유생산량을 늘이게 되면 국제시장에서 원유의 공급이 수요를 룡가하여 가격이 저락되고 성원국들의 전반적인 외화수입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오펜크성원국들이 이미 세계원유시장에서 차지하고있는 지위를 유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원유수출에서 리익을 얻을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된다. 오펜크나라들의 수출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그것으로 얻는 외화수입이 국가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조건에서 오펜크나라들은 어떻게 해서나 원유가격을 안정시켜야 했고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매 나라들의 하루생산량을 규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왔다.

그러나 2014년부터 이라크를 비롯한 일부 기구성원국들은 생산량할당에 관한 기구의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원유생산과 수출을 대대적으로 늘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부 오페크성원국들이 원유생산을 늘인것은 바로 원유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미국의 혈암유생산자들을 밀어내자는데 있었다. 오페크성원국들은 기구가 규정한 하루생산량을 지키는것이 원유시장가격의 안정을 보장하며 기구성원국들의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로 되지만 미국의 원유수출업체들을 밀어내기 위하여 자기들의 유리한 생산조건을 리용하여 생산량을 늘이는 시장전략으로 나갔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하루생산량에 대한 오페크성원국들의 합의가 준수되지 못한것은 오페크가 원유수출국으로 새롭게 등장한 미국의 혈암유생산자들을 원유시장에서 밀어내는데서 원유생산량을 늘이는것이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나갔기때문이라고 보고있다.

일부 오페크성원국들이 원유시장에서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유생산을 늘이는 조치를 취한것은 이 시기 원유수출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것과도 관련된다.

국제시장에서 해당 나라의 수출입무역은 자국화폐시세의 변화에 따라 유리해지기도 하고 불리해지기도 한다. 자국화폐의 가치가 높아질 때에는 수출무역의 발전에 불리하지만 자국화폐가치의 저하는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국제시장에서 오페크나라들의 원유수출이 늘어난것은 원유의 가격표시화폐인 미달러가치의 상승으로 이 나라들의 원유수출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것과도 관련된다. 국제시장에서 해당 나라의 화폐가치는 경제발전상태와는 관계없이 비교되는 다른 화폐가치의 변화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높이 평가되기도 한다. 이것은 한 나라의 화폐시세가 다른 나라 화폐와의 관계속에서 평가되는것과 관련된다.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1월 미국대통령 선거 2주간 세계금융거래에서 주요통화화폐로 되고있는 유로 대 미달러가치를 대비해보면 미달러 대 유로가치는 4%나 저락하였다고 한다. 미국금융업체인 씨티그룹은 유로에 대한 미달러전망이 180° 달라졌다고 하면서 앞으로 6개월~1년안에 유로가 《1:1동격시대》를 넘어 98US\$까지 떨어질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전문가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통화가치도 이미 저락추이를 보이고있으며 메히꼬와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통화가치가 폭락하면서 금융불안상태에 빠져들고있다고 평가하고있다.

다른 나라 화폐가치에 비한 미달러가치의 상승은 오페크나라들로 하여금 원유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으며 이것은 국제시장에서 오페크나라들의 원유수출량을 더욱 늘여 그들의 시장지위를 량적으로 안받침하였다고 볼수 있다.

국제원유시장에서는 오페크나라들뿐아니라 베네수엘라, 로씨야를 비롯한 비오페크성원국들에서의 원유생산과 수출의 증대도 원유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국제시장에서 비오페크성원국들의 원유생산과 수출이 증대된것은 지난 시기 계속 오르기만 한 원유가격의 등귀가 지속될것이라고 보고 그 기회에 긴장한 자금문제를 해결해 보려는데 있었다. 국제시장에서 원유거래가 이루어진 지난 150년동안의 역사를 보면 원유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하여만 왔다. 국제시장에서 로씨야의 로스네프찌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와 같은 많은 국영원유회사들뿐아니라 개인기업들도 역사적으로 상승만을 기록한 원유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북극과 같은 엄혹한 지역에서의 원유탐사와 개발에도 서슴지 않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생산량을 늘였다. 국제시장에서 원유가격은 생산량의 지나친 증대로 하여 전문가들과 투자가들의 예상을 뒤집고 급

격히 저락된것이다.

국제시장에서 원유가격저락의 중요요인은 셋째로, 원유수입국들에서의 원유재고량의 증대와 대용에너지생산의 증대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저하는 공급량이 일정할 때 수요량의 감소에 의하여서도 일어난다. 경제발전과 사람들의 소비생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는 원유는 그 재고량의 증대와 대용에너지생산의 증대로 하여 점차 그 수요가 떨어지고있으며 이것은 국제시장에서 원유가격저락의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된다.

국제원유시장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고있는것은 우선 많은 나라들이 원유재고량을 늘린데 있다.

원유화학공업을 비롯한 경제발전과 사람들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원유의 중요성으로부터 원유수입국들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원유가격이 더 올라가기 전에 원유를 수입하려는 심리로부터 경쟁적으로 원유를 끌어들이었다. 중국, 인디아를 비롯한 주요원유수입국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서의 경쟁적인 원유수입은 세계적인 원유재고량의 증대를 가져왔다. 자료에 의하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6년 4월말 경제협력개발기구(OCDE)원유수입국들의 상업적인 원유재고량이 3억 5 700만bbl이라고 발표하였으며 한편 영국의 BP회사는 발전된 나라들이 약 3억 5 000만bbl의 원유를 재고로 가지고있다면 발전도상나라들에도 그 비슷한 량의 원유가 재고로 남아있을것이라고 하였다.

세계적인 원유수입국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의 엄청난 원유재고량은 원유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켰으며 이것은 원유가격저락의 요인의 하나로 되었다.

국제시장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고있는것은 또한 원유를 대신할수 있는 생물연료와 자연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원유와 같은 화석에너지보다도 그것을 대신하면서도 환경보호사업에 유익한 생물연료와 자연에너지의 생산과 리용률이 점차 높아지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30년에 가서 세계에너지수요량에서 원유와 석탄, 천연가스의 몫이 80%로 줄어들것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마름류를 비롯한 비알곡작물에 의한 생물연료생산이 세계에너지수요보장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생물연료수요량은 2007년의 하루 80만bbl로부터 2030년에는 320만bbl로 늘어나는데 그중 운수부문이 총소비량의 5%의 몫을 차지할것이라고 한다.

생물연료들인 생물디젤유, 생물휘발유는 자동차를 비롯한 륜전기체들의 동력원천으로서 환경보호와 소비자들의 건강안전에 유익한것으로 하여 그 수요가 높아지고있으며 이것은 원유에 대한 수요를 그만큼 줄이고있다.

자연에너지의 개발과 리용도 원유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데 영향을 주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풍력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량이 660TWh로서 세계전력총생산량의 2.7%, 2030년에 가서는 1 490TWh로서 4.5%의 몫을 차지하게 될것이며 수력에 의한 전력생산량은 2015년에는 3 730TWh, 2030년에는 4 810TWh로, 생물자원과 지열, 태양에너지가 세계열에너지생산에서 차지하는 몫도 2006년의 6%로부터 2030년에는 7%로 높아질것이 예견된다고 한다.

총체적으로 세계적인 자연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량은 2015년에는 4 970TWh, 2030년에 가서는 7 705TWh로 늘어나게 될것이라고 한다. 이것도 원유에 대한 수요를

더욱 감소시키게 될것이라고 한다.

국제시장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있는것은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현상이 심해지면서 기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것과도 관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현상이 심해지면서 기온이 전반적으로 올라간것으로 하여 중요원천인 원유에 대한 수요는 낮아졌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수요는 기후의 영향을 받으며 연료인 경우 그것은 날씨조건의 영향을 특별히 더 받는다고 볼수 있다.

오늘 국제시장에서는 원유가격의 급격한 저락으로 오페크성원국들을 비롯한 원유수출국들의 자금규모가 줄어들고 경제장성속도가 떠지는 등 부정적영향이 초래되고있으며 원유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 원유채취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투자가들의 자금회수에도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있다.

국제시장에서 원유가격의 급격한 저락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자기의 경제적리익을 보장하자면 올바른 시장전략을 세우고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오페크성원국들은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밀어내고 더 많은 시장몹을 차지하기 위하여 오래동안 실시해오던 가격유지정책을 포기하고 원유생산량을 계속 늘이는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였지만 이것은 오히려 원유가격의 저락을 가져오고 자금확보에 불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오페크성원국들이 생산증대전략을 실행한것은 미국의 원유생산량에 비한 자기들의 생산량에서의 우세를 믿었기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원유수출로 어려운 자금형편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에 필요한것을 해결하려는데 있었다.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한데 의하면 세계원유생산업체들이 상환하지 못한 채무액은 2006년에 4 550억US\$였지만 2014년에는 1조 4 000억US\$나 되었다고 한다. 원유생산국들은 막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원유가격의 폭락속에서도 수출을 늘일수 밖에 없었다.

현실은 오페크성원국들을 비롯한 발전도상나라들이 국제무역에서 경제적리익을 보장하려면 올바른 시장진출전략을 세우고 서로 단결하고 협조하며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힘을 합쳐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의 시장경쟁에서 서로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더욱 협조하고 단결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국제시장, 원유가격저락